

HERMAN



HERMAN

목 차

머리말	3p
1장. 화작을 다루는 태도	4p
2장. 화작의 첫 번째 페이지	10p
3장. 화작의 두 번째 페이지	44p
3장. 화작의 세 번째 페이지	96p

<들어가며>

화작을 선택한 여러분은 화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이 책을 보고 있다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자꾸 1~2개씩 틀리는, 어쩌면 불완전한 상태라 화작이란 과목에 자신이 없는 상태일 겁니다. 게다가 이런 친구들 중 열에 아홉은 화작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매우 막막하고 불안한 상태일 겁니다. 화작을 못해서 막상 화작을 공부해보려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실 제일 큰 게 기출은 또 풀면 잘 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작에 대한 막막함만 늘어가고 그렇다고 언매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굉장히 답답함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은 오늘부로 멈추셔도 됩니다. 이 책에 담겨진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본인의 것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수능에서 10분내로 정확하게 화작을 풀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화작은 단기간에 정복이 가능한 과목이니깐요.

1장

화작을 다루는 태도

화작을 다루는 태도

화작을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작을 공부해본 적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비문학처럼 화작을 읽어내려 간다는 것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 화작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떤 체계와 법칙이 있고 그를 활용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지가 머릿 속에 없는거죠. 화작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로부터 정말 많은 체계와 태도가 생겨납니다.

1. 결국 '화법'과 '작문'이다.

2. 페이지마다 나오는 지문의 유형, 문제의 유형, 선지가 반복된다.

<결국 '화법'과 '작문'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의 이름은 '화법'과 '작문'입니다. 말하는 방식과 글을 작성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과목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출제하는 포인트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일치가 아닌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글로 표현하느냐를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지문에 너무 과몰입하게 되고 출제가 될 정보 외의 것들을 과도하게 잡게 되어

결국 문제를 풀 때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 정답을 바로 짚어내지 못하고

지문을 굉장히 여러 번 왕복하며 문제를 풀어내게 됩니다.



에이 선생님 그게 그게 아닌가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아래 지문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제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35~37] 다음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고 학생 여러분, 문화 해설사 □□□입니다. 한글 창제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 오늘은 한글 대중화에 힘쓴 두 인물에 대해 말씀드리죠. (목소리를 높여) 바로 주시경, 최현배 선생입니다.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한글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데 앞장선 두 분은 특별한 관계이기도 한데요. 어떤 관계일까요? 강연 내용에 힌트가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손을 올렸다 내리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한글 교육과 연구에 매진했던 주시경 선생이 남긴 말씀입니다. 선생은 한글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책 보따리를 들고 다녔기에 ‘주 보따리’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열정으로 국어 강습소를 개설했고, 여기에서 배출한 제자들과 함께 국어연구 학회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한글 학회의 뿌리가 됩니다. 대표 저서로는 문법, ,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주시경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는데, 이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소개할 인물은 최현배 선생입니다. 선생은 국어 강습소에 다니며 만난 어떤 인물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쯤에서 주시경 선생과의 관계를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맞습니다. 두 분은 사제 간입니다. 최현배 선생은 스승의 길을 따라 한글 교육과 연구에 전념합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는 중에도 검열을 피해 솜옷 속에 쪽지를 숨겨 놓으며 한글을 연구했다는 이야기는 선생의 굳은 의지를 잘 보여 주죠. 대표 저서로는 . 아, ‘갈’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텐데, 연구를 의미하는 우리말입니다. 선생은 해방 후에 국어 교재 집필과 교원양성에 힘썼습니다. 최현배 선생에 대한 자료는 △△ 기념관누리집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6. 다음은 강연자의 강연 계획이다.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화제 선정
 - 청중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강연 내용을 한글 대중화에 힘쓴 두 인물로 선정해야겠다. ①
- 청중 분석
 - 청중이 생소하게 느낄 만한 우리말의 의미를 풀이해서 제시해야겠다. ②
 - 강연 내용에 관심 있는 청중을 위해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겠다. ③
- 강연 전략
 - 강연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유발하고 나중에 답을 제시해야겠다. · ④
 - 강연 내용을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두 인물이 남긴 말을 각각 인용해야겠다. ⑤

37. 강연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에 제시된 청중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청중 1 : 한글 학회의 출발점이 국어 연구 학회였음을 알게 되었어. 국어 연구 학회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봐야겠어.
- 청중 2 : 조선어 학회 사건에 대한 발표를 맡았는데 강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최현배 선생이 옥중에서도 한글을 연구했다는 내용을 발표에 추가해야지.
- 청중 3 : 주시경 선생의 저서를 별다른 설명 없이 제목만 알려줘서 아쉬웠어. 그 저서들이 어떤 내용인지 찾아봐야겠어.

- ① 청중 1은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강연 내용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군.
- ② 청중 2는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군.
- ③ 청중 3은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④ 청중 1과 3은 강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청중 2와 3은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군.

35.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특성을 보여 주는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달하고 있다.
- ③ 대조를 통해 두 인물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준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⑤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문제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해당 페이지에선 문제의 상세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뒤 쪽에서 한 페이지씩 상세 분석을 할 때 상세한 해설과 분석이 들어갑니다.)

35.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특성을 보여 주는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달하고 있다.
- ③ 대조를 통해 두 인물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준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⑤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어떤가요? 이 지문에서 나왔던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봤나요? 뭐 최현배 선생이 쓴 대표적인 저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나요? 혹은 주시경 선생의 저서를 써놓고 최현배 선생의 저서냐고 바꿔서 적절치 않은 선지를 만들어냈나요? 아닙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습디다. 그냥 해당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 즉 화법만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과몰입해서 아 주시경 선생의 저서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꼭 기억해두고 밑줄그어야지! 주시경 선생이 주보따리로 불린 이유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밑줄 그어놔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문제를 잘 못 풀게 되는겁니다. 어차피 그런건 물어보지 않거든요.

36. 다음은 강연자의 강연 계획이다.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화제 선정
 - 청중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강연 내용을 한글 대중화에 힘쓴 두 인물로 선정해야겠다. ①
- 청중 분석
 - 청중이 생소하게 느낄 만한 우리말의 의미를 풀이해서 제시해야겠다. ②
 - 강연 내용에 관심 있는 청중을 위해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겠다. ③
- 강연 전략
 - 강연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유발하고 나중에 답을 제시해야겠다. · ④
 - 강연 내용을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두 인물이 남긴 말을 각각 인용해야겠다. ⑤

이번 문제는 어떤가요? 글의 세부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죠. 만약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으면 1번선지는 두 인물이 누구인지를 물어봤을 거고 2번선지는 해당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물어봤을 것이고 3번선지는 어떤 추가정보를 안내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봤겠죠. 나머지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말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같은 문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지문

(한 손을 올렸다 내리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한글 교육과 연구에 매진했던 주시경 선생이 남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을 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비문학이라면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볼 겁니다. 말과 나라의 상관관계, 지문에서 대립적 포인트가 주시경과 최현배였으니 주시경과 최현배의 대립을 염두해두고 대립점잡기 정도겠네요. (물론 말과 나라의 상관관계는 너무 당연한 말이고 지문에서 주시경과 최현배가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글이 아니긴 하나 뭐 굳이 비문학 문제로 출제하자면 해당 정보를 최현배라고 바꿔 써서 적절치 않은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화법과 작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한 손을 올렸다 내리며를 보고 비언어적 표현임을 " "을 보고 직접인용임을 잡고 갔을겁니다. "안에 있는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해두거나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물어보니까요. 사실상 화법과 작문을 푸는 학생에게 이 문장의 정보량은 “하나 입니다. 정보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이런 판단을 하고 갔으면 36번의 5번선지가 바로 풀렸겠죠. 왜냐면 출제가 될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출제 포인트만 잡고 그 외 나머지 정보량을 0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선생님 그럼 그 출제포인트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문장을 다뤄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화작의 큰 특징 두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화작은 페이지 별로 지문,문제, 선지가 다 반복된다고 했었죠. 지문이 반복되고 그에 따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이나 선지의 형태가 전부 반복되기 때문에 일종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작 지문을 읽을 때 문장을 자동으로 이 문장은 이렇게 출제되겠네~와 같이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즉 문장 자체의 정보량은 0으로 만들고 출제 포인트만 뽑아갈 수 있는거죠. 이걸 활용했던게 바로 앞에서 설명한 예시입니다. 뒤쪽에서 페이지별로 배우게 될겁니다.



37. 강연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에 제시된 청중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청중 1 : 한글 학회의 출발점이 국어 연구 학회였음을 알게 되었어. 국어 연구 학회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봐야겠어.
청중 2 : 조선어 학회 사건에 대한 발표를 맡았는데 강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최현배 선생이 옥중에서도한글을 연구했다는 내용을 발표에 추가해야지.
청중 3 : 주시경 선생의 저서를 별다른 설명 없이 제목만 알려줘서 아쉬웠어. 그 저서들이 어떤 내용인지 찾아봐야겠어.

- ① 청중 1은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강연 내용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군.
- ② 청중 2는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군.
- ③ 청중 3은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④ 청중 1과 3은 강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청중 2와 3은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군.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부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선 뒤 쪽에서 상세히 분석할테니 우선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유형보면 자료 활용 문제같은 거나 첫 페이지 말고 두번째 페이지나 세번째 페이지에선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간략하게만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과목은 ‘화법과 작문’이니까요. 이에 대해선 페이지별 상세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화법과 작문은 기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문장의 정보량을 압축하고 지문의 문장을 ‘출제 포인트’로 변환시키는 독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제포인트 외의 문장은 거의 날림으로, 사실상 정보량0으로 가져가도 좋습니다. 어차피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다음페이지부터 각 페이지별 상세 분석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화작의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는 거의 변화가 없는 페이지인데요. 지문의 유형은 항상 강연이 나오고 문제의 유형도 사실상 거의 1~2가지의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준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발표의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청중의 관심을 짐작하여 말하고 있다.
- ④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청중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며 실천을 권유하고 있다.

<지문의 시작과 끝>

1. 지문의 앞 부분

- (1) 내용 선정 동기를 제시하여 글의 화제 제시
- (2)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을 통해 화제 제시 or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 제시
- (3) 발표 내용 순서를 제시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끔 유도

= 글의 앞 부분은 주로 화제를 어떻게 제시했느냐를 물어본다. 위의 3가지 케이스가 핵심 케이스니 반드시 나온다면 체크하고 가자

2. 지문의 끝

- (1) 발표내용을 요약하며 발표 내용을 강조
- (2) 청중에게 바라는 바 언급(추가조사 권유나 행동권유)
- (3) 청중의 이해정도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며 내용 강조하고 마무리

= 글의 마지막 부분은 주로 글의 내용을 어떻게 강조하며 끝냈느냐, 혹은 독자에게 행동을 권유했느냐의 케이스로 나뉜다. 해당 문장이 보이면 반드시 체크하자

1. 개념 정의

=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선지. 반드시 개념이 나온다면 □를 치고가자.

2.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 주로 ()의 형태로 제시하니 ()나오면 가볍게 밑줄 그어주자.

3. 질문을 통해 청중과 상호작용

=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선지. 질문이 나온다면 Q로 표시만 해주고 가자. 질문내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4. 자료 활용

= 주로 구체적인 수치라는 말과 함께 나온다. 구체적 수치가 나오면 수치를 외우려 하지 말고 어차피 물어보는건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했나?정도니 가볍게 밑줄 치고 가자.

추가로 출처 활용도 물어볼 수 있으니 출처가 나온다면 반드시 체크하자.

5. 인용

= 주로 전문가의 견해나 직접인용 간접인용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선지가 출제된다. 뭐 " "로 직접인용했다던가 전문가 이름 나오면 항상 □치고 가자.

6. 예시

= 예를 들면~ 을 통해 제시되는 형태. 앞 케이스들보다는 덜 출제되지만 지문에 나온다면 거의 출제되는 형태 예를 들면이 나오면 ○치고 가자.

7. 지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 거의 출제되지 않는 케이스다. 지문의 구성방식에 따라 다른데 대조, 비유,예상되는 반론등이 나올 수 있다. 지문에 서 정말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라 지문 읽으면 바로 눈에 보이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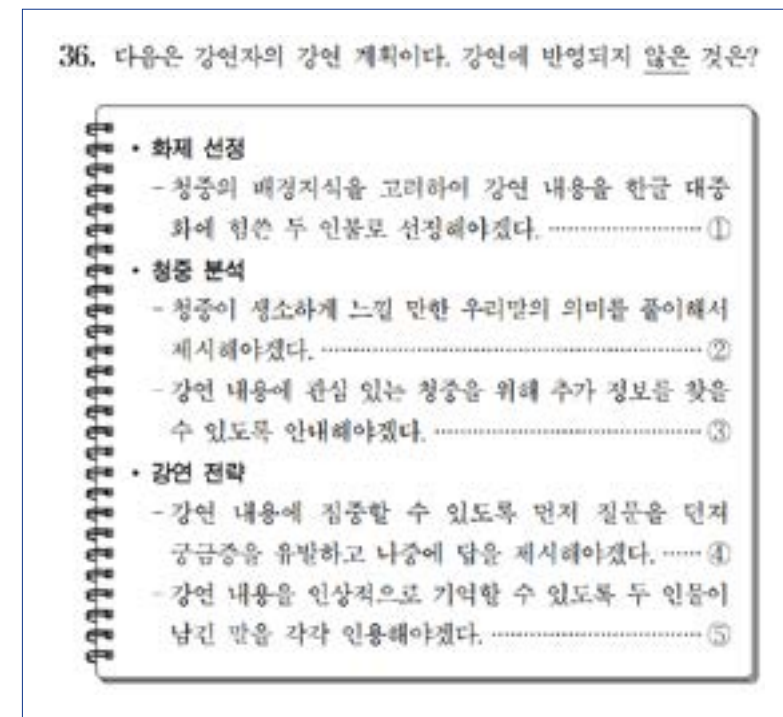
<주의 사항>

지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게 아닙니다.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문의 문장을 보고 위에 서 적어놓은 출제포인트에 맞춰 문장을 변환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씩 외우려고 하면 안됩니다 화작 기출 을 많이 풀다보면 정말 빈번하게 나와서 한번 케이스를 훑어보고 기출을 풀면 반복되게 잡히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케이스별로 반복되며 익숙해진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번 문제>

해당 문제는 주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간혹 다른 유형의 문제가 하나씩 끼어들긴 하는데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사실상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강연 계획 문제입니다. 사실상 35번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강연 계획이라는데 강연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전달할지를 계획하는 거라 사실상 이게 실행된 강연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35번문제와 겹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5번에서 배웠던 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어렵지 안핵 풀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6번 두 번째 케이스>

36. 다음은 발표자가 보여 준 화면이다. 발표자의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 30% - 국제 식물위 보존 연례(2021) -	<멸종이 우려되는 식물> 40% - 영국 왕립 식물원(2020) -	<우리나라 종자 보관 시설> 종자 -
[화면 1]	[화면 2]	[화면 3]

- ① [화면 1]은 매년 나무 종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② [화면 1]은 멸종 위기의 나무 종 중에서 종자가 보존되고 있는 종의 비율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③ [화면 2]는 전체 멸종 우려 종에서 식물 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④ [화면 3]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자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⑤ [화면 3]은 지하 종자 저장고의 위치가 종자의 발아 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두 번째 케이스는 해당 페이지에서 가장 어려운 자료 활용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거나 문제를 틀리게 되는데요. 이 문제도 결국 '본질'을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화법'입니다. 강연 내용을 어떻게 전달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즉 해당 자료를 왜 썼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면 됩니다. 위 문제의 구조를 보시면 자료 1 2 3은 각각 해당 자료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해당 내용을 자료로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선지의 구조를 보면 '~를 설명하는 자료로' 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이 자료를 왜 썼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린 자료가 나오면 이 두가지 포인트를 잡아내면 됩니다. 주로 자료가 여러 개 제시되면 각각의 자료에 대해 왜 썼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두 문장을 지문에서 각각 찾아내면 됩니다.

주로 해당 내용은 해당 자료가 제시된 부분의 앞 뒤에 제시되며, 저 같은 경우 그 앞뒤 부분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찾고 ()를 쳐 놓습니다. 그리고 ()의 내용을 지문을 처음 읽을 때 과몰입하지 않고 사실상 ()치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어차피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선지보고 와서 ()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36. 발표자의 자료 활용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1]		[자료 2]	
N 4		N 4	
감자	옥수수 (배추로 교체)	옥수수	감자 (배추로 교체)
상추	고추	고추	상추
첫해 배치도		다음 해 배치도	

- ① 상추보다 키가 큰 고추가 상추의 동쪽에 배치되어 상추에 그늘이 많이 생겼음을 [자료 1]을 활용하여 설명해야지.
- ②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서 심은 배추가 고추 때문에 광합성이 부족했음을 [자료 1]을 활용하여 설명해야지.
- ③ 작물들의 키 순서를 고려하여 감자를 북동쪽에 배치했음을 [자료 2]를 활용하여 설명해야지.
- ④ 키가 제일 큰 옥수수는 어느 위치에 심어도 잘 자랄 수 있었음을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설명해야지.
- ⑤ 동일한 위치에서도 주변 작물에 따라 배추가 자라는 정도가 달랐음을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설명해야지.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죠? 선지는 모두 해당 자료를 왜 썼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문에서 미리 선지로 출제될 포인트를 잡아낸다면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 포인트를 놓치고 지문을 읽기에 선지와 지문을 왕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풀이를 하게 되는거죠.

해당 문제의 예시를 통한 적용은 37번 문제까지 모두 분석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37번 첫 번째 케이스>

37번 문제는 첫 번째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고 간혹 가다 두번째 케이스로 출제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 녹차에 타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녹차의 떫은맛이 물에 우려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봐서 녹차의 타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

학생 2 : 떫은맛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쉽게 접하는 과일인 감과 연결해서 설명하니 떫은맛에 관심이 생겼어. 떫은맛이라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몸에 좋다니 앞으로 적당히 먹어 봐야겠어.

학생 3 : 감의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떫은맛을 내는 성분이었구나. 감이 익어 가면서 그 성분의 성질이 변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강연을 들은 학생의 반응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5번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보기 내에서 자주 출제되는 선지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들을 출제 포인트로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 ①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과 비교
- ② 언급되지 않은 내용 추론
- ③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의구심
- ④ 추가 정보 탐색 및 행동 다짐
- ⑤ ~긍정적 평가(효용성, 궁금증 해소)
- ⑥ ~부정적 평가(문제점 제시, 의문 제기)

주로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입니다. 보기의 문장을 보고 해당 내용들이 나온다면 반드시 위의 형태로 문장을 변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전 적용은 두 번째 케이스가 마친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두 번째 케이스>

3. 학생의 발표를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표 후 질의응답]

- 청 중 : [A]

- 발표자 : 네, 그것은 고구려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① 고구려 고분 벽화의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졌다고 하셨는데요, 무덤 내부에 벽화를 계속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② 고구려에 도교가 확산된 시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기에 사신이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③ 고구려 고분 벽화에 주대중소법이 활용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당시에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④ 고구려 돌방무덤은 3세기에 출현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전 시점에서 볼 수 없었던 무덤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⑤ 고구려 고분 벽화가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문화재가 시대를 초월하여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발표자의 대답을 통해 청중의 질문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의 경우는 표본이 많지 않고 사실 지문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전부 달라지기에 사실상 대답 보고 선지랑 매치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는 않은 문제니 차분하게 접근한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실전적용 1

[35~37]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안전 설계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와 관련한 유익한 내용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차 안에서 특정 구간을 지날 때 드르륵하는 소리가 들리며 차가 진동하는 것을 느껴 본 적 있나요? (대답을 듣고) 많은 분들이 경험했군요. 여러분이 느낀 진동은 도로에 시공된 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왼쪽은 진행방향과 일치하는 세로 홈을, 오른쪽은 진행 방향에 수직인 가로 홈을 진하게 표시한 그림입니다. 세로 홈은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는 일을 줄이고, 가로 홈은 제동 거리를 줄여 주죠.

특히 가로 홈을 활용하면 도로에서 멜로디가 들리게 할 수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제시) 차가 특정 도로 구간을 지날 때 동요멜로디가 들리는 것이 신기하죠?(㉡자료 제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홈의 너비와, 홈 사이의 도로면 너비를 합한 값에 따라 음 높이가 정해집니다. 홈 너비는 일정하니 결국 홈 사이 도로면의 너비에 따라 음 높이가 달라지는 셈이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음 길어도 달라지게 홈을 시공하면 차가 달릴 때 멜로디가 들리게 됩니다. 이 멜로디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졸음운전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월 평균 2.6건이었던 구간에 멜로디가 들리게 가로 홈을 시공하자 해당 도로 구간에서의 교통사고가 3개월간 0건이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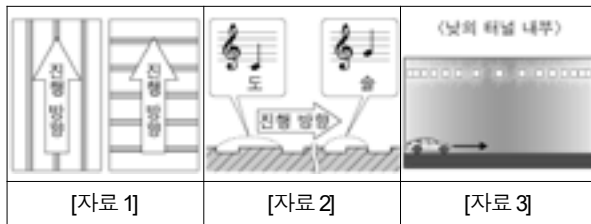
도로에서의 또 다른 안전 설계는 터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조명등이 설치된 간격이 달라서 낮에 터널입구 쪽과 출구 쪽이 중간 구간보다 밝은데요, 이는 우리 눈이 터널 입구에서는 어둠에, 출구에서는 밝음에 서서히 익숙해 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 외에 곡선 도로에서 차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 바깥 쪽이 높아지게 경사를 주고, 밤에도 차선이 잘 보이게 미세한 유리알갱이를 차선에 바르기도 합니다. 발표 내용 잘 이해되었나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도로에서 안전을 위한 장치들을 찾아보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발표에서 다룰 화제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②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과 관련지어 발표의 계기를 밝히고 있다.
- ③ 청중의 경험과 관련한 질문을 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발표 내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 1]은 홈 사이의 도로면 너비를 달리해서 멜로디를 만든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② [자료 1]은 살얼음 발생 감소에 효과적인 홈과 제동 거리 단축에 효과적인 홈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③ [자료 2]는 특정 구간을 지날 때 느끼는 차의 진동이 홈 때문일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④ [자료 3]은 낮에 터널의 중간 구간이 입구 쪽과 출구 쪽보다 어둡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⑤ [자료 3]은 달라지는 밝기에 눈이 서서히 적응하도록 조명등의 설치 간격을 달리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 곡선 도로에 경사를 준다는 내용을 간략히 제시해서 아쉬워. 도서관에서 그 원리를 알아봐야겠어.
 학생 2 : 멜로디가 들리는 도로가 재미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안전을 위한 거였군. 이런 도로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어.
 학생 3 : 미세한 유리 알갱이를 차선에 바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밤에도 터널 구간별로 밝기가 다른지 알고 싶어.

- ① 학생 1은 자신의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이 자신의 배경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고 있다.

13 / 20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지문분석

지문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안전 설계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와 관련한 유익한 내용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지문의 첫 부분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문의 첫 부분은 주로 글의 화제 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제포인트로 변환해야 합니다. 여기선 지난 수업 시간에~ 라는 부분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화제를 제시한다라는 출제포인트로 변환시킬 수 있겠네요. 딱 이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정보는 무시하고 갑니다.

지문

여러분, 달리는 차 안에서 특정 구간을 지날 때 드르륵하는 소리가 들리며 차가 진동하는 것을 느껴 본 적 있나요? (대답을 듣고) 많은 분들이 경험했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배웠던 대로 물음표 있는 곳에 Q표시하고 대답을 듣고에 밑줄 치고 빠르게 넘어가면 됩니다. 뭐 소리가 들리니 차가 진동하니 필요 없습니다. 출제포인트는 청중에게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든지, 청중과 상호작용한다는 선지로 만들어지겠네요.

지문

여러분이 느낀 진동은 도로에 시공된 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왼쪽은 진행 방향과 일치하는 세로 홈을, 오른쪽은 진행 방향에 수직인 가로 홈을 진하게 표시한 그림입니다. 세로 홈은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는 일을 줄이고, 가로 홈은 제동 거리를 줄여 주죠.

해당 부분의 출제 영역은 자료활용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주로 자료 제시의 앞 뒤 부분에 자료를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나와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선지 판단할 때 보기로 하고 빠르게 앞 뒤에 두 내용을 확인하고 ()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 부분에서 해당 자료가 진동의 원인이 도로에 시공된 홈때문임을 드러내기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함을, 뒷 부분에선 가로 홈과 세로 홈의 차이를 제시하며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지문

여러분, 달리는 차 안에서 특정 구간을 지날 때 드르륵하는 소리가 들리며 차가 진동하는 것을 느껴 본 적 있나요? (대답을 듣고) 많은 분들이 경험했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배웠던 대로 물음표 있는 곳에 Q표시하고 답을 듣고에 밑줄 치고 빠르게 넘어가면 됩니다. 뭐 소리가 들리니 차가 진동하니 필요 없습니다. 출제포인트는 청중에게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든지, 청중과 상호작용한다는 선지로 만들어지겠네요.

지문

특히 가로 홈을 활용하면 도로에서 멜로디가 들리게 할 수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제시)

해당 영상 자료는 36번에서 활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넘기되 영상자료를 제시했다는 것에만 밑줄 치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어차피 문제로 안 물어보니까요.

지문

차가 특정 도로 구간을 지날 때 동요 멜로디가 들리는 것이 신기하죠? (㉠ 자료 제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홈의 너비와, 홈 사이의 도로면너비를 합한 값에 따라 음높이가 정해집니다. 홈너비는 일정하니까 결국 홈 사이 도로면의 너비에 따라 음높이가 달라지는 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앞 뒤에서 찾아야겠죠. ㉠은 특정 도로 구간을 지날 때 멜로디가 들림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를 홈의 너비와 도로면의 너비의 합에 따라 음의 높이가 달라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 뒤 부분 잘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지문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음 길어도 달라지게 홈을 시공하면 차가 달릴 때 멜로디가 들리게 됩니다. 이 멜로디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졸음운전을 예방합니다.

자료 활용문제도 아니고 출제 포인트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지문

실제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월 평균 2.6 건이었던 구간에 멜로디가 들리게 가로 홈을 시공하자 해당 도로 구간에서의 교통사고가 3개월간 0건이었다고 합니다.

자료 건수가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머리에 넣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서 표현해줬구나. 라고 출제포인트로 변환시키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지문

도로에서의 또 다른 안전 설계는 터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시) 조명등이 설치된 간격이 달라서 낮에 터널 입구 쪽과 출구 쪽이 중간 구간보다 밝은데요, 이는 우리 눈이 터널 입구에서는 어둠에, 출구에서는 밝음에 서서히 익숙해 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출제포인트만 체크하고 갑시다. 지문에서 집중해서 봐도 어차피 선지보고 다시 와야 합니다 그럴땐엔 차라리 여기선 출제포인트만 괄호치고 선지보고 나중에 와서 읽는 편이 더 효율적이겠죠. 간격의 차이를 통해 밝음에 익숙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쓰여 있죠. 이를 터널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 뒤 부분에 괄호 치고 넘어갑니다.

지문

이 외에 곡선 도로에서 차가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 바깥쪽이 높아지게 경사를 주고, 밤에도 차선이 잘 보이게 미세한 유리 알갱이를 차선에 바르기도 합니다. 발표 내용 잘 이해되었나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도로에서 안전을 위한 장치들을 찾아보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외의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만 잡고 갑시다. 글의 마무리에서 추가 정보를 찾아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로만 빠르게 잡고 글을 마무리하면 글을 정말 빠르게 핵심만 짚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35번

선지 1

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발표에서 다룰 화제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개념 정의에 대해선 우리가 네모 박스를 치기로 약속했었죠? 네모 박스 친 기억이 없습니다. 바로 1번으로 찍고 넘어갑니다.

선지 2

②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과 관련지어 발표의 계기를 밝히고 있다.

전형적인 선지죠? 글의 첫 부분에서 화제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인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을 우리는 이미 찾아 봤습니다. 미리 지문에서 출제 포인트로 변환해버리니 굳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바로 지워집니다.

선지 3

③ 청중의 경험과 관련한 질문을 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질문 있었죠? Q로 표시했었습니다. 지문으로 올라가 확인해보면 청중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이네요 빠르게 지웁니다.

선지 4

④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발표 내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 잡았었죠. 쉽게 풀립니다.

선지 5

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마지막 마무리에 대해 청중에게 추가 조사를 권유했었죠. 선지는 역시 그대로 나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지문을 읽음과 동시에 바로 풀려버리죠?
이게 바로 화작의 체계입니다.



36번

Comment

자료 문제는 지문을 읽을 땐 두 개의 출제 포인트를 읽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거나 글의 전반적인 흐름 이해를 위해 가볍게만 읽고 넘어가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지에 와서 (.) 쳐놓은 곳으로 돌아가 빠르게 선지와 매치시키는 작업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 추가코멘트

선지의 구조가 전부 왜 자료를 사용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지문에서 잡은 ()만 확인하면 쉽게 풀립니다. 또한 ~에서 활용되었느냐를 물어보죠? 이는 어떤 자료를 활용했느냐를 물어봅니다. 이를 통해 자료 1은 ㄱ 자료 2는 ㄴ 자료 3이 ㄷ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번 4번은 보자마자 바로 지워야겠죠.

선지 1

① [자료1]은 홈 사이의 도로면 너비를 달리해서 멜로디를 만든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ㄱ은 도로에서 느낀 진동의 원인이 홈임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입니다. 그러나 선지는 아예 다른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선지 2

② [자료1]은 살얼음 발생 감소에 효과적인 홈과 제동 거리 단축에 효과적인 홈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자료 활용에서 잘못되었죠 자료 1은 ㄱ과 매치됩니다.

선지 3

③ [자료2]는 특정 구간을 지날 때 느끼는 차의 진동이 홈 때문일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자료 2는 ㄴ을 활용했으나 ㄴ을 쓴 이유는 특정 도로 구간에서 멜로디가 들리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해당 선지는 ㄱ에 대한 내용이네요.

선지 4

④ [자료 3]은 낮에 터널의 중간 구간이 입구 쪽과 출구 쪽보다 어둡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자료 3은 ㄷ과 매치됩니다.

선지 5

⑤ [자료3]은 달라지는 밝기에 눈이 서서히 적응하도록 조명등의 설치 간격을 달리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5번이 정답이지요. 두 가지 출제포인트 모두 매치됩니다.

37번

학생 1



~아쉬워 라는 표현을 보고 부정적 반응임을 잡고 도서관에서 원리를 알아봐야한다는 표현을 보고 추가 정보 탐색이라는 출제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학생 2



자신의 배경지식과 비교하고 있죠. 해당 출제 포인트 하나를 잡고 여기서도 학생1과 같이 추가 조사 탐색 출제포인트가 있네요.

학생 3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방법에 대해 언급하며 추가 정보 탐색이라는 출제포인트를 제시하네요.

선지 1

① 학생 1은 자신의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출제 포인트는 없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간략하게 제시해서 아쉽다고 했으니까요

선지 2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이 자신의 배경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배경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닌 배경지식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죠. 다른 내용입니다

선지 3

③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고 있다.

전형적인 출제포인트입니다. 학생 1과 2 모두 추가정보 탐색을 하려고 하고 있죠 바로 답이 나옵니다.

선지 4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해당 출제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선지 5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고 있다.

효용성이란 출제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선지가 반복된다는 화작의 특징을 활용하면 선지 판단이 매우 빨라집니다.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니까요. 이런 체계를 만들고 익히는게 화작의 기출 분석입니다.



실전적용 2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17세기의 우리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혹시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보며) 예상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시네요. 이 책은 1670년경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로,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음식 디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책에 실린 음식 중 석류탕을 먼저 소개한 후 난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화면에 사진을 보여 주며) 어떤 음식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화면을 넘기며) 네, 여러분이 관심을 보하시는 이 사진이 '석류탕'입니다. 여기서 석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과일의 이름입니다. 석류탕은 석류 모양으로 빚은 만두를 넣어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석류탕은 찜고기, 무, 표고 등에 간장과 후춧가루를 넣고 볶아 만두소를 만들고, 밀가루로 만든 피에 만두소와 잣가루를 넣어 석류 모양의 만두를 빚은 뒤 맑은장국에 넣어 끓여 낸 음식입니다.

(화면을 넘기고) 이 사진은 '난면'입니다. '계란' 할 때의 '란', '냉면' 할 때의 '면'입니다. 난면은 계란 흰자와 밀가루를 반죽한 후 썰거나 분틀에 눌러 면을 만들고 이를 삶아 낸 다음 찜고기를 삶은 국물에 그 면을 말아 만든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음식디미방』에는 두 음식을 포함하여 총 146가지의 음식이 면병류, 어육류, 주국방문 및 초류,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면병류는 밀가루로 요리한 종류, 어육류는 생선과 고기를 요리한 종류, 주국방문 및 초류는 술과 식초 종류를 말합니다. 제가 소개한 것은 어육류에 속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음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책을 보시면 흥미로운 음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가지 음식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중간중간 요약하고 있다.
- ② 소개한 두 음식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탐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③ 소개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의 예를 들고 있다.
- ④ 발표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발표 주제의 선정 동기를 밝히고 있다.
- ⑤ 언급한 책의 역사적 가치를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황 분석〉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 목적의 발표임.....㉠
 ○방포 장소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교실임.....㉡
 ○청중이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을 잘 알지 못할 것임.....㉢
 ○청중이 음식 이름에 익숙하지 않을 것임.....㉣

〈실행 계획〉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발표할 내용의 순서나 분량을 조정할 수 있음.....㉤

- ① ㉠: 청중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발표에서 다루려는 음식이 소개된 문헌을 밝힌다.
- ② ㉡: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를 활용해 사진을 화면으로 제시하며 설명한다.
- ③ ㉢: 책에 대한 청중의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집필 시기와 책 제목의 의미를 밝힌다.
- ④ ㉣: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중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음식의 이름을 설명한다.
- ⑤ ㉤: 청중과의 상호 작용으로 파악한 청중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부에서 안내한 발표 순서를 바꾸어 소개한다.

37.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1 : 석류탕과 난면을 조리할 때 모두 찜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걸 보니 당시에는 찜고기가 구하기 쉬웠나 봐.
 학생 2 : 석류탕에서 만두 만드는 방법이 내가 아는 만두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네.
 학생 3 : 석류탕이 어육류에 속하는 걸 보니 고기를 핵심적인 재료로 간주해서 분류한 것 같아.

- ①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발표에서 음식 재료를 설명한 내용이 정확한지 평가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자신이 알고 있는 조리법과 비교하며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들었다.
- ③ 학생 2는 학생 3과 달리 발표자가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발표 내용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예측하며 들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며 들었다.

13 / 20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지문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17세기의 우리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17 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지문의 첫 부분에선 앞서 배운대로 출제포인트를 빠르게 잡고 내려가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제시했네요. 이렇게 출제포인트로 변환하고 빠르게 내려갑니다.

지문

혹시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보며) 예상 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시네요.

청중에게 질문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네요. 해당 출제포인트로 변환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음식디미방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지문

이 책은 1670년경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로,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음식디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문한 자료를 제시하며 단어의 뜻까지 서술해줬습니다. 개념에 네모박스 치고 자료를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구나 정도만 출제포인트 잡고 갑시다 절대 내용에 집중하지 마세요. 음식디미방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는 단 한문제도 없습니다.

지문

지금 부터 책에 실린 음식 중 석류탕을 먼저 소개한 후 난면을 소개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형적인 문장이죠. 글의 첫 문단에서 발표 순서를 제시하여 독자들이 글을 예측하며 읽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거죠. 출제포인트 잡고 갑니다.

지문

먼저 화면을 보시죠. (화면에 사진을 보여 주며) 어떤 음식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화면을 넘기며) 네,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시는 이 사진이 '석류탕'입니다.

우린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겁니다. 현재 자료활용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자료 제시 부분을 과몰입하며 읽을 필요가 없는거죠. 어차피 물어보지 않을테니까요. 그냥 ?에 Q표시 치고 빠르게 넘어갑시다.

지문

여기서 석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과일의 이름입니다. 석류탕은 석류 모양으로 빚은 만두를 넣어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출제포인트를 적용해봅시다. 청중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기에 밀줄 정도 굵고 빠르게 넘어갑시다.

지문

석류탕은 꿩고기, 무, 표고 등에 간장과 후춧가루를 넣고 볶아 만두소를 만들고, 밀가루로 만든 피에 만두소와 잣 가루를 넣어 석류 모양의 만두를 빚은 뒤 맑은장국에 넣어 끓여 낸 음식입니다.

석류탕이 무엇으로 만든 요리인지 관심 없습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화작을 제대로 다루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죠. 출제포인트도 없으며 자료 활용 문제 역시도 없으니까요. 빠르게 넘어갑시다.

지문

이 사진은 '난면'입니다. '계란' 할 때의 '란', '냉면' 할 때의 '면'입니다. 난면은 계란 흰자와 밀가루를 반죽한 후 썰거나 분틀에 눌러 면을 만들고 이를 삶아 낸 다음 꿩고기를 삶은 국물에 그 면을 말아 만든 음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볼 거 없습니다. 빠르게 넘어갑시다.



선생님! 이것도 난면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으니 개념 제시! 출제포인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문제에서 개념을 제시하였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지문에 몇개 있던 하나만 잡으면 문제가 풀리겠죠. 위에서 겹치는 걸 잡았으니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겁니다. 정보량은 많이 압축할 수록 유리하니까요.



지문

지금까지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음식 디미방」에는 두 음식을 포함하여 총 146가지의 음식이 면병류, 어육류, 주국방문 및 초류,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면병류는 밀가루로 요리한 종류, 어육류는 생선과 고기를 요리한 종류, 주국방문 및 초류는 술과 식초 종류를 말합니다. 제가 소개한 것은 어육류에 속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굳이 나온다면 문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인 분류를 통한 개념 제시 정도를 선지로 만들 수 있으나 많이 나오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죠. 가볍게 아~ 분류를 통해 개념 제시하고 있구나 정도만 넣어두고 빠르게 넘어갑시다.

지문

이 외에 다른 음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보시면 흥미로운 음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의 마무리에서 대부분 나오는 파트죠. 추가 학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출제포인트로 변환하고 넘어갑시다.

35번

선지 ①

① 두 가지 음식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중간중간 요약하고 있다.

발표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은 없죠. 우리가 잡지 못했던 출제포인트입니다. 과감하게 잡지 않았던 것 같으면 우선 넘어가세요. 해당 문제는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기에 해당 선지의 대부분은 지문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긴 가민가 애매하면 지문으로 돌아가지말고 다음 선지로 넘어가고 확실한 하나의 선지를 바로 판단하는게 유리합니다.

선지 ②

② 소개한 두 음식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탐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추가 자료 탐색은 나왔었지만 소개한 두 음식에 대한 탐색이 아닌 다른 음식에 대한 조사를 권유했었죠. 적절치 않습니다.

선지 ③

③ 소개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의 예를 들고 있다.

예시를 든 적 없습니다. 우리가 예시에 대해선 출제포인트로 인식하고 있으니 나왔으면 잡았을 겁니다.

선지 ④

④ 발표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발표 주제의 선정 동기를 밝히고 있다.

글의 첫 부분에서 잡았던 출제포인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발표 주제의 선정동기를 제시했었죠. 빠르게 정답 찍고 넘어갑니다.

선지 ⑤

⑤ 언급한 책의 역사적 가치를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다.

서로 다른 견해도 없으며 인용도 없습니다. 인용이 있었다면 우리가 체크하고 갔을 겁니다.

36번

Comment

자료 활용 문제와는 다른 케이스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35번의 연장선상입니다. 가볍게 데이터베이스화된 출제포인트들 위주로 빠르게 판단해나가면 됩니다.

선지 ①

① ㉠ : 청중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발표에서 다루려는 음식이 소개된 문헌을 밝힌다.

해당 선지는 출제포인트인 자료 소개를 활용한 선지죠. 우리가 지문에서 문헌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선지 ②

② ㉡ :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를 활용해 사진을 화면으로 제시하며 설명했다.

화면의 자료를 활용했었죠. 가볍게 잡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지 ③

③ ㉢ : 책에 대한 청중의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집필 시기와 책 제목의 의미를 밝힌다.

책의 집필 시기 이런 세부정보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린 출제 포인트로 개념 제시를 잡았습니다. 해당 부분 보면 책의 시기도 나와있네요. 출제포인트를 잡았다면 바로 풀 수 있었습니다.

선지 ④

④ ㉣ :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중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음식의 이름을 설명한다.

해당 선지는 청중의 경험 다른 말로 배경 지식을 활용하였다를 조금 바꿔서 낸 선지죠. 지문에서 잡았던 출제포인트입니다.

선지 ⑤

⑤ ㉤ : 청중과의 상호 작용으로 파악한 청중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부에서 안내한 발표 순서를 바꾸어 소개한다.

발표 순서를 안내하긴 했으나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선지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한걸 떠올려보면 발표 순서 안내는 상대방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발표 순서를 바꿔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학생 1



지문에 없는 내용을 추론하며 듣고 있습니다. 출제포인트 잡아봅시다.

학생 2



자신의 배경지식과 비교하며 듣고 있네요.

학생 3



지문에 없는 내용을 추론하며 듣고 있습니다. 학생 1과 공통점이네요.

Comment

해당 문제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보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정답 선지로 만들어야겠죠. 보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생1과 3이 공통된 출제포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라면 학생1과 3을 이야기한 선지 먼저 볼 것 같네요.

선지 1

①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발표에서 음식 재료를 설명한 내용이 정확한지 평가하며 들었다.

보기에 없던 출제포인트입니다. 긍정 평가 부정 평가는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출제포인트죠.

선지 2

②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자신이 알고 있는 조리법과 비교하며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들었다.

보기에 없던 출제포인트입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는 선지 유형이네요.

선지 3

③ 학생 2는 학생 3과 달리 발표자가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발표 내용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예측하며 들었다.

배경지식을 활용하곤 있으나 예측하며 듣고 있진 않습니다. 가볍게 판단할 수 있네요.

선지 4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다.

정답은 4번이죠. 학생1과 3의 공통점을 물어봤습니다.

선지 5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며 들었다.

효용성 즉 긍정평가를 물어봤죠. 보기엔 없었습니다.

<35~37번을 마무리하며>

어떠신가요? 화작에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은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나 쉽게 문제가 풀리다니! 그렇습니다. 화작은 조금만 공부하고 분석하면 누구나 빠른 시간내에 정복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분석은 제가 다 해봤습니다. 차분하게 기출에 적용하며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주세요. 반드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뒤 쪽에 있는 워크북 페이지에서 훈련을 하고 넘어와주세요. 배웠던 것들은 바로 써 먹어봐야 자기 것이 됩니다.

파이널 모집

수능까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불안정한 국어 점수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국어 점수에 불안하신가요?
아직도 국어가 감으로만 푸는 것 같고 막연한 느낌이 드시나요?

수능국어는 명확한 체계가 존재합니다. 감으로 풀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풀이 역시 존재합니다.
남은 기간 막연한 독해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체계를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체 수강생 모두를 각자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끌고 갈 겁니다.
결국 제 이론과 체계가 가장 수능에 적합함을 증명할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럼 학생이 원하는 그 이상을 얻게 해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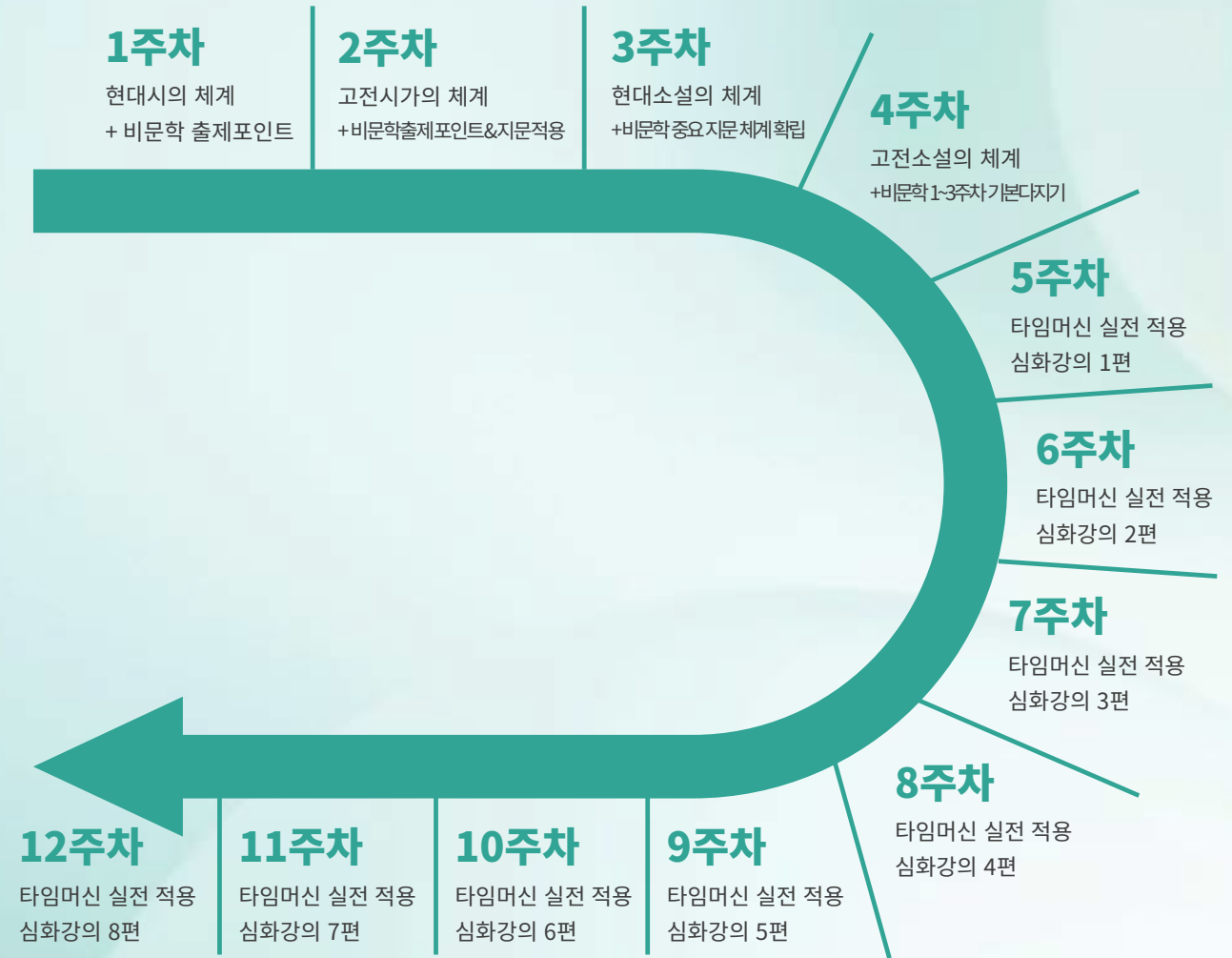
국어를 감으로만 푸는 학생

기출을 통해 구축된 PCG만의
명확한 국어 체계로 감이 아닌 명확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국어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학생

이미 올해 많은 수강생들이 증명했습니다.
기존의 방법이 실패했다면 따라오세요. 보다 확실한 확신을 주겠습니다.

강의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강의 구성은 학생마다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의 실력에 따라 맞춤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수능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학생 개인 맞춤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의와 교재의 퀄리티



배웠던 체계의 적용, 실전적인 마인드 확립

인강을 듣고 공부하는 가장 큰 막연함과 어려움은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막막함일 겁니다. 분명 강의 듣고 공부했는데 새로운 지문에 적용해 보려하니 많이 막막할 겁니다. 지문의 각 문장별로 어떤 생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장들이 어떻게 출제화되고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 모두 실전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문제 풀이 순서

지문은 어떻게 무엇을 먼저 다루냐에 따라 문제 풀이 시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문제 풀이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학생이 고민하지 않아도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풀이 순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장에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플랜을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감으로 푸는 풀이가 아닌 명확한 행동의 체계

수능국어는 문제마다 명확한 체계와 행동영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 풀이의 정확도와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문제의 정밀 분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푸는 것이 아닌 일관적인 풀이의 체계로 문제를 연습하여 명확한 체계를 빠르게 확립합니다.

문제의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답이 이거야!”라는 풀이가 아닌, 선지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고차원적인 풀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1대 1 피드백

사실 학생들이 점수가 가장 빨리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본인 풀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타겟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통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중의 국어 문제집의 해설은 단지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답이 이거야!”라는 식의 해설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뭘 놓쳤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파악이 힘듭니다.**

수백명의 학생들을 과외하며 얻은 경험으로 학생들의 문제 풀이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중구난방식의 공부**가 아닌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는 공부**를 추구합니다.

강의의 진행에 따라 본인이 어려운 부분과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선별하고 단순히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공부가 아닌 매일매일 공부할 때마다 실력이 느는 공부를 추구합니다.

강사의 직접 피드백을 통해 확실한 실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수강평

선생님 89점입니다. 화작은 다 맞았고 비문학은 3개, 문학은 2개 틀렸습니다. 아직 화작이랑 고전소설은 선생님께 배우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마지막 문제는 제대로 못 풀었습니다. 거의 4-5등급이었는데 정답률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재서 문 건 정답률 오연민이라서 시간배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재 지금까지 해왔던 거 꾸준하면 하연 1등급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3월 강의 보면서 점검하겠습니다!

89라니 엄청난 발전이네요! 1점이 88인가 89이니였네요 학생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이런 상승이 있었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 국어 정복 정말 가능합니다

선생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도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7월말에 4 5등급이 1등급이 될 수 있다니 더 열심히 선생님 수업 따라가겠습니다!

3월 풀었습니다. 진짜 3등급 이상을 삼수할 때까지 맞은 책이 있는데 94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고득점이긴 하지만 학원에서 듣 거지만 진짜 많이 안되네요 문학이 어려웠는데 배운대로 푸니까 정말 쉽게 넘어갔어요.. 감사합니다ㅠㅠ



오르비 닉네임

PCG

검색

1. 오르비 검색창에 '닉네임 : PCG' 검색

- 왜 이 문제가 합리유형으로 선정되었을까? 08/04 15:00
- 현대사의 모든 것 07/27 10:31
- 표현상의 특징에서 시간이 길린다면 07/22 10:52
- 1대1 무료 피드백 컨텐츠 모집 07/18 19:31
- 내가 기술을 분석했던 방식 07/16 17:30
- 20수능 비문학 교재 무료 배포 및 7월 비문학 해설 07/13 12:25

2. PCG 프로필 클릭



활동

배지 0

팔로잉

회원 프로필

<https://open.kakao.com/o/sGQGoZW>
e

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 클릭